

국가지정 연구중심병원 분당차병원, 항암효과 높이는 NK세포치료제 개발



2013년 국가지정 연구중심병원으로 선정된 분당차병원의 전경(왼쪽 사진). 2016년 헤담도암 파트에 처음 도입한 분당차병원 암센터의 다학제 진료 3000례 달성 기념식.



사진제공 | 분당차병원

차세대 암 치료제 연구 속도낸다

“치료 어려운 난소암·유방암 등 치료전략 제시”
차병원·바이오그룹 보유 네트워크 적극 활용
암센터, 다학제 진료 최단기간 3000례 달성도
2016년 도입 이후 현재 18개 진료과 확대 운영



연구중심병원인 차 의과학 대학교 분당차병원(원장 김재화)이 차세대 암 치료 연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13년 국가지정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된 분당차병원은 최근 암센터를 중심으로 새로운 암치료제 관련 연구 결과를 국제학회에서 발표하거나 저명 학술지에 게재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2016년 도입한 암 다학제 진료 역시 최단기간 진료 3000례를 돌파하며 빠르게 정착하고 있다.

●차바이오텍과 암치료제 공동연구

분당차병원 암센터의 안희정(병리과)·문용화(혈액종양내과) 교수팀은 최근 차바이오텍과 공동으로 건강한 사람의 혈액에서 NK세포를 추출해 이를 분리, 배양한 뒤 동결해 항암 효능을 높이는 동종 NK세포치료제를 개발했다.

이번에 개발한 동종 NK세포는 면역반응을 억제하는 단백질인 PD-1이 발현되지 않아 리간드(PD-L1)가 증가되어 항암제에 내성을 가지는 암세포에도 효과가 있었다. 리간드 발현이 상대적으로 높은 난소암, 유방암, 뇌암 등에 더욱 효과가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이 연구는 중앙학 연구에서 권위를 인정받는 국제학술지 ‘Journal of Experimental & Clinical Cancer

Research(IF 11.161)’ 10월호에 실렸다.

연구를 진행한 안희정 교수는 “면역억제 리간드 발현이 높아 치료가 어려웠던 난소암, 삼중음성 유방암, 뇌암 등의 난치암 치료와 함께 항암제 내성으로 치료가 어려운 재발성 암에 대한 새로운 치료전략을 제시했다”고 성과를 평가했다.

이번 연구는 보건복지부의 연구중심병원 육성과제 지원으로 진행됐다. 국가지정 연구중심병원인 분당차병원은 현재 줄기세포 치료 기술을 이용한 희귀·난치성 질환(신경계, 안질환, 근골격계 질환)을 비롯해 암, 난임, 노화 극복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차병원·바이오 그룹이 보유한 7개국 71개 의료네트워크와 차 의과학대학교, 차 종합연구원, 차바이오텍, 차백신연구소 등을 연계한 산학연병(기업·학교·연구소·병원) 시스템을 신약 및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실제로 안희정·문용화 교수팀에 앞서 차세대 면역항암제 후보물질 연구로 성과를 낸 혈액종양내과의 전홍재·김찬 교수팀 역시 산학연병 시스템의 도움을 받았다. 두 교수는 9월 열린 ‘2021 유럽암학회’(ESMO)에서 차세대 면역항암제 후보물질 2종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전홍재·김찬 교수팀은 연구에서 주요 면역기능을 담당하는 TLR(튜유사수용체) 물질 연구를 차백신연구소와

공동으로 진행했다. 또한 항체 면역항암치료제 개발회사인 센트릭스바이오사와 협력해 신규 면역 판독을 표적으로 하는 신약후보물질에 대한 연구결과도 발표했다.

●18개 진료과 의료진 간호사 구성

한편 분당차병원 암센터는 다학제 진료 3000례를 최단기간 달성하는 성과도 올렸다. 권위 있는 미국 암치료 가이드라인 NCCN에서는 암환자의 치료율과 완치율을 높이기 위한 치료방향 결정을 여러 진료과 전문가들이 모여 결정하는 다학제 진료를 강력 권고하고 있다. 분당차병원 암센터의 다학제 암 진료는 지난해만 진료 1000례를 기록할 정도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암센터가 다학제 진료를 도입한 것은 2016년 헤담도암 파트가 처음이다. 현재는 헤담도암을 비롯해 간암, 대장암, 유방암, 부인암, 두경부암, 폐암, 위암, 비뇨기암, 갑상선암, 피부암, 유전암 등 모든 암 질환에 18개 진료과 의료진과 다학제 전담 간호사가 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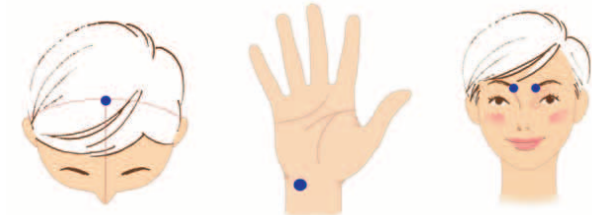
분당차병원의 다학제 진료는 환자 1명 진료에 평균 5개 진료과 교수 7명 정도가 참여한다. 내과, 외과, 혈액종양내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모여 진단부터 수술, 항암 및 방사선, 면역항암, 신약 치료 등을 단계별로 계획을 짜고 환자 맞춤형 치료를 한다.

다학제 진료는 환자 만족도 조사에서 100% 만족도를 보였고 재발암이나 전이암 등 중증 희귀, 난치암의 치료 성공률이 높아졌다. 진료를 받은 환자들의 생존기간이 향상됐을 뿐 아니라 진단 당시 수술이 불가능했던 3기, 4기의 환자들이 항암 치료 후 사이즈를 줄여 수술할 수 있는 경우도 많아졌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건강

스포츠동아 2021년 11월 4일 목요일 15



스트레스성 두통 해소 지압 혈도인 백회혈, 불안감 해소에 도움되는 지압 혈도인 신문혈, 눈의 피로 개선 지압 혈도인 잔족혈(왼쪽부터). 사진제공 | 자생한방병원

“수험생 스트레스 해소 지압법으로” 자생한방병원, 수능 족집게 지압법 소개

얼마 남지 않은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험생들에게는 시험 당일까지 스트레스를 풀고 집중도를 높여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다. 자생한방병원 홍순성 원장이 간편한 스트레스 해소 및 집중력 향상을 위한 수능 지압법 3가지를 추천했다.

불안감 진정에는 신문혈 지압법이 있다. 새끼손가락 쪽 손목 경계 주름에 있다. 심장과 연결된 혈자리로 이곳을 자극하면 심장 혈액순환이 원활해져 불안, 초조, 긴장감을 낮출 수 있다. 엄지로 혈을 누른 상태에서 손목을 돌리면 효과가 더욱 크다.

스트레스성 두통에는 백회혈이 좋다. 정수리가 움푹 들어간 부분으로 이해하면 쉽다. 손끝으로 30초간 지압하면 머리 주위 혈액 순환이 빨라져 두뇌 활동도 원활해진다.

눈의 피로 개선에는 잔족혈 지압법이 있다. 눈썹 안쪽 끝 부분의 혈자리인데 엄지 혹은 검지로 10~15초간 압통이 살짝 느껴질 정도로 지그시 지압한다. 부교감 신경을 자극해 눈의 침침함과 안구 피로가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김재범 기자

고대의료원·신한라이프, 디지털 헬스케어 공동개발

고려대의료원은 신한라이프와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 공동연구 및 개발에 대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을 공동개발하고, 건강데이터 활용과 분석을 위한 연구 및 기술 교류 사업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고려대 안암병원의 교수 및 연구진은 신한라이프와 솔루션 개발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했다. 한편, 양측은 10월 27일 고려대 메디사이언스 파크 정보관에서 전략적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광동제약 ‘케이디 알렉스 플라스타’ 출시

광동제약은 온·오프라인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케이디 알렉스 플라스타’를 출시했다. L-멘톨과 박하유 등은 쿨라스 성분으로 청량한 느낌을 주며 지혈작용을 돕고 염증이 확산되지 않도록 한다. 이어 핫라스 성분인 노닐산비닐릴아미드가 림프관을 확장시켜 면역을 잘 순환을 돕고, 소염진통제 성분이 피부에 침투해 통증을 경감시킨다. 퇴행성 어깨결림, 요(허리)통, 신경통, 류마티스, 타박상, 염좌(뺨), 근육통, 관절통 등에 효능이 있다.

손·발가락 등 절단사고…수지접합술로 복원 및 기능회복 가능

건강올레길 | 우리동네 주치의의 건강학

신체 부위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면 신속한 응급처치 후 골든타임 내 수지접합술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수술이 빠르게 이뤄질수록 예후가 좋기 때문에 응급처치 후 빠른 병원 이송이 관건이다.

절단사고가 발생하면 깨끗한 거즈와 수건을 이용해 상처 부위를 압박하고 심

장보다 높이 들어 지혈한다. 그 후 절단된 부위를 찾아 흐르는 물이나 식염수로 세척해 물기 없는 깨끗한 거즈나 수건으로 감싼 뒤 차갑게 밀봉보관해서 병원으로 가져와야 한다. 단 조직 손상을 가져올 수 있어 직접 얼음에 닿으면 안 된다.

환자와 절단 부위를 병원으로 무사히 이송하면 절단부를 접합하는 수지접합술을 시행한다. 미세현미경 수술을 통해 절

단된 뼈나 신경, 혈관, 힘줄, 피부 등을 다시 이어 외관 및 기능 복원이 가능하다. 절단 부위의 뼈를 철사나 금속판을 이용하여 먼저 고정하고 힘줄, 혈관, 신경, 피부의 순서로 봉합한다. 구조물을 꼼꼼히 연결해야 하고 완전절단의 경우 2시간에서 7시간까지도 걸리는 어려운 수술이다.

절단 부위의 동맥, 정맥이 부족하거나 신경 절단 부위가 과사된 경우는 미세혈관

정맥 이식과 신경이식수술을 먼저 시행하고 접합수술을 진행한다. 미세접합술을 통한 재접합 가능 여부는 절단 부위와 절단된 조직의 보관온도에 따라 결정된다.

수지접합수술은 고도의 기술력과 집중력을 필요한 수술이다. 24시간 외상센터 운영 및 야간수술이 가능한 병원에서 수술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전문의를 통해 수술을 받는 것이 좋다.

서울프라임병원 원은영 원장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11월 4일 (목) 음력: 9월 30일 문의: (02) 812-1201, 도원학당

	행운색: 청색 길방: 동		행운색: 흰색 길방: 서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행운색: 흰색 길방: 서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의욕이 충만한 가운데 자신의 일이나 문제 등이 현실로 돌입되는 시기이니 현 상황에서 확장이나 변화를 시도하기 위하여 과감한 행동이 따라야 하며 너무 주위를 의식할 필요는 없다. 용기를 가져라. 일을 마무리하는 날이다. 항상 자신의 주장보다는 주위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혜롭게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신경이 많이 쓰이는 때이다. 의욕이 저하되는 모습을 타인에게 들릴 수 있으니 극기의 정신이 필요하다. 무리하면 스스로 상처이다. 의욕이 너무 앞서거나 물질적인 면을 강하게 추구하기보다는 현재의 상태에서 안정을 찾는 게 바람직하다. 한편 변화의 과정에 있어서 독자적인 행동보다는 인간적 유대관계에 마음을 쓰는 것이 유리하다. 신변에 가까운 일은 성취된다. 자신의 뜻을 이루기에는 보이지 않는 장애가 많고 고심하게 되며 주위로부터 구설이 뒤따르기도 한다. 매사에 많은 애로가 따르니 성급하게 나서지 말고 돌파구를 찾도록 노력하라. 강하게 밀어붙이는 힘이 필요하다. 별로 진척이 없는 시기이므로 무엇을 이루기에는 시간적인 여유를 필요로 한다. 보다 긍정적이고 진취적으로 생각하여 현 위치에서 좀 더 높은 자리로 도약하려는 노력이 있다면 곧 이 위기는 극복 되겠다. 소극적으로 행동하라. 급진적인 이득과 함께 이성이나 귀인의 도움이 따른다. 자신의 명예에 관한 행동이나 금전 관계도 원활하나 과감한 행동이나 처세는 심사숙고 해야 한다. 서류상의 문제는 정확한 확인 및 보관이 필요하다. 혼돈의 시기이다. 전환기와 같다.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행운색: 흰색 길방: 서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행운색: 흰색 길방: 서		행운색: 청색 길방: 동
자칫 인간관계에서의 트러블로 인해 곤고한 정경에 놓이게 되며 그로인한 심리적인 갈등과 마찰로 의욕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한동안의 안정으로 다소 여유를 얻으며 생각지 않은 만남이 연출된다. 지출이 많을 때이다. 자제하라. 지금까지 쌓아올린 공이 인정을 받으며 문서적인 측면의 일에 발전의 계기가 조성되어 일 사이동, 확장, 변경 등에 좋은 결실을 맺게 된다. 자력증의 취득에 있어서도 기대 이상의 결과를 얻는다. 마음을 비우고 조용히 관망하라. 오늘의 행상은 저녁놀이 산전 조목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것이다. 세상은 바빠 돌아가는 데 나만 홀로 무인도에 떨어져 있는 것 같다. 물질이나 금전적으로 충분치 못함에도 호화롭고 사치스런 생활을 바라는 욕망이 강할 때이다. 성급함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면서 주위의 자문이나 조언을 귀담아 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가능한 한 타인의 일에는 개입을 않는 편이 좋으며 자신의 건강에 많은 신경을 기울여 안정을 도모하기 바란다. 시기를 기다리며 심신을 안정시켜라. 만사가 행동하는 운이나 큰일은 할 수가 없다. 다소 소극적이 되고 할 만큼 저자세로 일에 임하면 크게 길할 것이다. 모든 일에 도를 지나치면 도리어 재해를 입기 쉬운 때이므로 특히 대인관계 등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하겠다. 심사숙고해서 경계망을 삼가야 할 시기이다. 결술하 나아가면 산이 증축하는 난관에 부딪힌다. 정리해야 할 때는 정리해야 한다. 태연하고 여유 있는 마음으로 차분히 노력해서 현재의 지위를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의 날씨			4일(목)		
서울 60/0	인천 60/0	춘천 30/0	강릉 0/0	대전 20/0	전주 20/0
9 18	11 18	7 18	11 20	7 20	9 20
광주 20/0	대구 0/0	부산 0/0	창원 0/0	제주 20/20	지역 강수 확률 (오전/오후)
8 21	7 20	11 21	8 20	14 21	최저 최고기온 C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3695호	
발행인·편집인 이인철	편집국장 연재호	사업총괄 김성수	광고국장 이승욱
편집부장 안도영	스포츠부장 소로초부장 정재우	엔터테인먼트부장 안재	이정연
산업경제부장 양형호	사진부장 고충철	인쇄 동아일보사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월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보·투고 02-361-1616	sol@donga.com	